스위스의 디자인.

헬베티카 폰트부터 프라이탁까지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전 세계를 휩쓴 스위스 디자인
타이포그래피, 패션 디자인, 시계 제조
박물관 관람 체험까지 디자인하는
스위스 다운 디자인 마인드
완벽한 색채와 형태를 추구하는 레이블

헬베티카(Helvetica) 폰트의 개발 그 자체만으로도 스위스의 디자인은 세계적인 명성을 갖고 있다. 타이포그래피 외에도 스위스는 독특한 패션 디자인, 시계 제조, 박물관 등에서 완벽한 색채와 형태를 추구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스위스를 대표하는 디자인 브랜드와 디자인에 대해 알아본다.

1. 프라이탁(Freitag) 플래그십 스토어

다니엘(Daniel)과 마르쿠스 프라이탁(Markus Freitag) 형제가 취리히 서부 지역을 지나다니던 화물 트럭의 덮개로 사용되던 방수포로 메신저 백을 만든 것이 1993 년의 일이었다. 지금은 전세계 사람들이 눈에 띄는 색채와 프라이탁 로고가 빛나는 가방에 열광하게 되었다. 취리히 서부지역, 크라이스(Kreis) 5 구역에 가면 콘테이너 박스를 쌓아 올려 만든 프라이탁 플래그십 스토어가 있다. 모두들 나만 가질 유일무이한 디자인을 세심하게 고르느라 여념이 없다.

2. 아크리스(Akris)

스위스 명품 브랜드 아크리스는 1922 년 생갈렌(St. Gallen)에서 설립되었다. 지난 30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알버트 크림러(Albert Kriemler)가 장인정신이 깃든 패션 레이블을 럭셔리 브랜드로 승격시킨 장본인이다.

3. 뮤제 오메가(Musée OMEGA)

유서 깊고 특별한 역사가 초현대적 건물에 고스란히 담겼다. 2019 년, 오메가가 박물관을 열었는데, 빌/비엔느(Biel/Bienne)에 있는 스와치 그룹/오메가 캠퍼스, “시간의 도시(La Cité du Temps)”를 찾으면 된다.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일본 건축가, 반 시게루(Shigeru Ban)가 디자인한 건축물로, 아름다운 조명이 공간 곳곳을 따라 흐른다. 오메가가 구축해온 특별한 스토리를 들려준다.

4. 취리히 디자인 박물관

포스터, 디자인, 그래픽, 응용미술 네 가지 컬렉션을 선보이는 디자인 미술관이다. 독어로는 무제움 퓌르 게슈탈퉁(Museum für Gestaltung)이라 부른다. 총 50 만 점이 넘는 오브제가 스위스의 디자인과 비주얼 커뮤니케이션을 보여준다. 유럽에서도 정평난 디자인 상설전을 감상하다보면 감탄하게 된다.

5. 응용미술 및 디자인 박물관

기능성과 디자인, 공예와 산업적 생산적 면모를 살펴볼 수 있는 박물관으로, 빈터투어(Winterthur)에 있다. 특별전에서는 디자인을 모든 면모에서 세심히 살펴볼 수 있는데, 일상적 문화를 놀랍고 특별하며 감각적인 방식으로 꿰뚫어볼 수 있게 해준다. 다양한 물건과 재료, 공간에 대한 서사도 펼쳐진다. 신구 테크놀로지와 산업적 생산 및 장인 생산 등 다양한 방식의 디자인을 살펴볼 수 있다.

6. 바라간 갤러리(Barragán Gallery)

카스텐 횔러(Carsten Höller)의 슬라이드 타워, 장 프루베(Jean Prouvé)의 매력적인 주유소. 비트라 캠퍼스(Vitra Campus)는 세계적인 건축가들의 작품을 모아 놓은 대단한 무대다. 비트라 캠퍼스에서도 비트라 디자인 박물관(Vitra Design Museum)이 있는데, 장 프루베의 작품이다. 산업 가구 디자인에 관련된 중요한 전시를 무척 잘 기획한다.

7. 파텍 필립(Patek Philippe) 박물관

제네바(Geneva)에 있는 파텍 필립 박물관은 시간 여행을 선사해 준다. 시계생산의 500 년 역사가 우아하고 화려한, 그래서 보석이라 부를만한 시계와 장신구를 따라 유유히 흐른다.

8. 뮈닥(MUDAC) – 현대 디자인 및 응용미술 박물관

로잔(Lausanne) 대성당 맞은편, 메종 고다르(Maison Gaudard) 건물 안에 자리해 있던 뮈닥이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했다. 중세 시대 건물로, 스위스에서도 중요한 문화재로 꼽히는 메종 고다르는 2023 년부터 보수공사를 진행한다. 기차역 가까운 곳에 새로 생긴 플랫폼(Plateforme) 10 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튼 뮈닥은 스위스의 현대 디자인과 응용미술을 참신한 기획으로 풀어내는 박물관이다. 현대 그래픽 디자이너, 패션 디자이너, 건축, 일러스트레이터 등 스위스 디자인의 다채로운 면모를 엿볼 수 있다.

9. 생갈렌(St. Gallen) 직물박물관(Textilmuseum)

생갈렌은 품질이 우수한 직물로 800 년 동안이나 그 유명세를 유지하고 있다. 직물 교역으로 인해 부와 명성을 축적한 도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로 현재도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들이 직접 패브릭을 고르기 위해 생갈렌을 찾고 있다. 그 역사를 품고 있는 아름다운 작품을 직물 박물관에서 만나볼 수 있다. 800 년에 이르는 직물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 자수 예술부터 최신 디자인 트렌드까지 광범위한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레이스 공예, 현대 직물 아트도 살펴볼 수 있는데, 10,000 점이 넘는 전시품을 감상할 수 있다. 전시에서는 역사적인 직물, 오리지널 손 자수 기계, 일본 패턴 샘플, 패션 포토그래프 등 다양한 내용을 다룬다. 역사적인 자수, 이집트 묘지에서 출토된 직물, 14 세기의 역사적인 자수, 유럽의 진귀한 수공 레이스 등이 전시되어 있다. 생갈렌의 자수 산업에 대한 전시도 살펴볼 수 있다.

자료 협조: 스위스 관광청 www.MySwitzerland.co.kr

Switzerland Tourism Korea
77 Songwol-gil, Jongno-gu, Seoul 03165
MySwitzerland.com